

노형욱 장관, 추석 공항안전시설 비행점검, “방역과 안전” 강조

- 전국 공항과 항로상의 항행안전시설 비행점검 수행 -

- 신공항 건설 예정지 병행 점검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김포공항을 찾아 추석 대비 항행안전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,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*과 신공항 건설 및 예정지에 대한 비행점검을 수행하였다.

* 무선전파 등을 이용한 위성항법시설, 레이더 등 감시시설, 계기착륙시설 등

□ 먼저, 노형욱 장관은 김포공항을 찾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○ 이어,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공역에서 많은 항공기 수용을 위해서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,

○ “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되도록 시설을 관리하고, 특히 철저한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추석 연휴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다.

□ 또한, 김포공항에서 비행점검용 항공기에 탑승하여 전국 항로를 비행하면서 항행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,

○ 더불어, 신공항 계획부지도 점검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, 공사과정에서 환경 영향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.

○ 또한,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으로 계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.

2021. 9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